

신춘문에 당선작

시

증명사진

(김재준)

창문 밖의 풍향제는 한사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머리를 꿈추 세우며 떨고 있다 매서운 날들이 나를 후려왔듯이 바람의 거친 속도가 칠봉 위에 다만 놓여있을 뿐인 저 화살을 어디론가 날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요동을 치며 제 자리에서 한없이 날고 있는 화살을 바라보며 멈춰 있는 것이 때로는 무서운 전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력서에 붙일 추운 얼굴에 밀랍 미소를 만드는 순간

팻, 빛의 칼날이 내려치는 2.5x3cm의 단두(斷頭) 나는 잠시 시력을 잃고 보이지 않는 하얀 피를 흘쩍인다

자, 한 번 더 찍습니다 내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십 번이라도 줄거리 목을 늘어놓을 것이다 절박한 시냇줄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내 몸을 꿰고 날아오르자 망치를 맞은 짧은 쇠소리가 길게 울린다 나는 지을 수 있는 가장 온화한 얼굴로 빛의 칼날을 받는다

시 심사평

현대인의 고민 취업 예리한 관찰로 포착

시에 기운이 없다. 살가운 서정의 만지작거림도 없고, 이 더러운 세상을 후려치는 거대담론의 포효도 없고, 형식의 실험을 위한 대담한 모험심도 없다. 시가 죽어 가는가? 기력은 시들시들하고, 목소리는 다 고만고만하다. 가족·밤·가난·고향과 같은 비소비비비한 소재가 넘치고, 대부분 평서형 종결어미로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른다.

사소한 이야기를 그저 사소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이 그렇다. 심사하는 내내 당선작을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 때문에 더 유심히 응모작들을 읽었다. 일정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한 작품은 다섯 편이었다.

정갈호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 고래'는 온돌방의 고래와 바다의 고래를 말놀이 기법으로 형상화하고자 한 시이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상상력으로 매우지 못해 뒷부분으로 갈수록 공허해진다.

이성임의 '클리프 속의 여자'는 다른 응모작들을 포함해 단단한 언어 구성능력을 보여주지만 맛이 지나치고 소품에 그치고 있다.

오승근의 '소리를 쫓다'는 시적 묘사에 공을 들인 시인데, 말투가 시를 앞서나간다. 시어와 일상어의 차이, 혹은 그 둘 사이의 절제를 좀 더 공부했으면 한다.

당선작과 함께 끝까지 겨룬 이해경의 '가벼운 집'은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시가 생기는 지점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적 대상을 너무 안이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그 핵심을 집어내는 데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재준의 '증명사진'을 흔쾌히 당선작으로 골랐다. 풍향계를 다룬 기성시인의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했지만 취업이라는 현대사회의 다소 무거운 고민을 예리한 관찰과 안정된 문장으로 매우 잘 포착하고 있다. 대상과의 거리 조절에 의한 비유가 적절하고, 구조도 완결미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시인으로 성공하기 바란다.

긴 시간 잠복, 불현듯 나타난 시에 감사

당선소감

오늘 순천만 갈대밭을 다녀왔습니다. 석양 속에서 푸른 날들이었으나 마른 화살들로 가득한 벌을 걸으며 나는 이 별관처럼 아름다운 과녁이었는가, 푸르게 날아와 주었던 캄캄하게 식어가는 내 화살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이기적인 연인처럼 시에게 세상을 변혁하라. 길을 보여달라. 악을 쓰다 차갑게 배신했지만 긴 시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 이 사람이, 어찌를 처준 시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다락에 넣어둔 먼지 쌓인 꿈을 닦아주며 다시 써 볼 것을 권해준 기원이 씨, 나의 아내여, 당신이 베풀어준 이 많은 것을 나는 다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해찬아 슬야아, 나의 신앙들이야. 나는 너희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주위에서 나를 낚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두렵고 무서웠다. 나의 시는 미래의 너희들에게 남기는 편지일 것이니, 내 심장의 소리와 색깔을 적을 것이다. 비루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여주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벽에서 한 점 가능성을 귀히 여겨 손을 내밀어주신 정운천 선생님, 시의 엄정함을 가르쳐 주신 강인한 선생님, 매 시편마다 쓴 소릴 아끼지 않으셨던 큰누님 강정숙 선생님, 다시 시를 쓰는 걸 절반을 대신 걸어준 고성만, 조성국 형. 놀이터가 되어준 시인회의, 시마을과 시마을 동인, 영원한 마음의 고향 터알문화동인회 그리고 광주일보사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재준

▲1967년 고흥 출생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이문재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2년 '시운동'에 '우리 살던 옛집 지붕'을 발표하며 등단 ▲1995년 김달진문학상, 1996년-2002년 소월시 문학상, 1999년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2005년 지훈문학상, 2007년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 ▲시집 '내 잊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호텔', 산문집 '내가 만난 시와 시인' '이문재 산문집' 등 다수



안도현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단국대대학원 문예창작학 석사 ▲1996년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2002년 노작문학상, 2005년 이수문학상, 2007년 윤동주문학상 등 수상 ▲어른을 위한 장편동화 '연어', 시집 '간절하게 참 절없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등 다수

종교계 2009 신년 메시지

“위기는 곧 기회, 용기를 내 새 출발하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다. 활발했던 남북간의 교류도 중단되고, 국내의 정치상황은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후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을 빌미로 생태계 파괴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보다도 더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좌절치 않고 난국을 극복한 저력이 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할 때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연대의식 속에서 다함께 뜻을 모아 현재의 난국을 힘차게 극복하자.

소망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봉사 의지와 섬김의 자세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자”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장 강상원 목사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원동력인 희망이다.

희망은 땅 속 깊이 들어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부어야 하는 마중물, 우리 삶의 마중물과 같다.

희망은 상황이 먼저 변화되어야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에서 시작된 희망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간다. 비전과 목표

를 향해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긍정의 실천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다.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말자.

끝이 깊으면 산이 높고,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한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 모두가 비전과 목표를 향해 창조적 에너지로 힘차게 전진해 가길 기원한다.

“역경계 땀 절망 말고 순경계 만들어야”

광주·전남불교협의회 대표 영조 스님



어려움 때일수록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감싸는 아름다운 풍속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마저 삭막해져서는 안된다. 역경계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 순경계를 만들어 가고, 순경계에 있을 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역경계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라고 부처님께서는 타일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 어려움에 스스로 낙담하거나

주변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과 오만은 없었는가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물질적인 탐욕에 너무 집착하여 정신적인 가치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나만의 필요에 취해서 이웃과의 나눔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참회해야 할 때다.

분래가 부처인 우리의 본마음을 되찾아 새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무원칙한 이윤추구에 깊은 반성과 성찰”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김현 교무



“재산을 잃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더 큰 손실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했다. 올해는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웰빙 웰빙’ 하면서 몸 건강만 생각하고 경제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 없이 물질적 성과에만 치중해 왔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원칙 없이 이윤만 추구해온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한다.

오늘의 문제는 근본적 성찰 없는 응급처방 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문제라 본다. 진정한 삶의 문제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무원칙한 이윤추구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과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 나갈 목표이며 시대적 과제다. 생명과 평화를 화두로 길을 찾아야 한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물자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만한 물자는 없다”고 한 건디의 가르침을 음미해 볼 때다.

Large advertisement banner for CH Chungkuk Culture Center, featuring various services like 'Big Sale', 'EAT IT', and 'Traditional Kimchi'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ates.